

## 고대 그리스 도기의 종류와 특징

오세연, 311호 고대 그리스 · 로마실 18:00~18:30

흙으로 빚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와 도기는 고고학 연구에 기초가 되는 유물입니다. 토기와 도기는 거의 모든 고대 유적에서 발견될 정도로 자료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형태와 시문된 문양을 비교 연구하여 제작 지역과 시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장식 도기는 기원전 6세기 전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대량 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수출되었으며, 18세기 중반 이후 이탈리아 남부 고대 유적에서 엄청난 양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장식 도기는 지중해 지역의 고대 생활, 종교, 미술 등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기에 그려진 도기화는 초기 단계에서는 도기의 붉은 색을 그대로 살린 바탕 위에 동물이나 인물을 새기고 유약을 입혀 구운 흑회식(그림 1) 기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기원전 530년경 그림 부분은 적갈색 바탕흙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배경에 유약을 입히는 적회식(그림 2) 기법이 등장해 발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기는 그림도 흥미롭지만 용도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생김새와 크기, 용도에 따라 저장용기, 물이나 술을 끄는 용기, 술잔, 향유병, 보석함, 제의 용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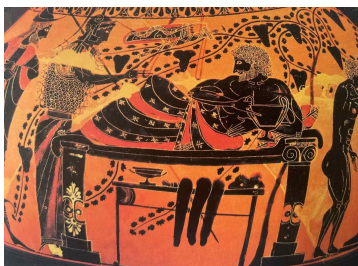


그림 1. 흑회식(Black-figu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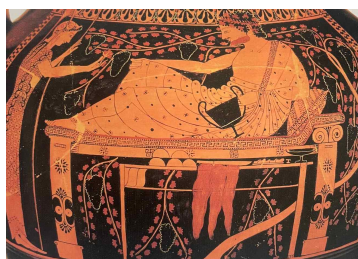


그림 2. 적회식(Red-figured)



그림 3. 고대 그리스 도기의 용도별 구분

※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스 미술』 105쪽 전체  
(다르마루즈 지음, 노성두 옮김, 2008)

## 집모양 토기- 살림집일까, 곳간일까?

최경환,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집모양 토기[家形土器]는 실제 집을 본떠 만든 토기로, 신라와 가야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양은 크게 두 종류, 즉 살림집과 곳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안은 비어 있고 액체를 담는 굴뚝모양 깔때기와 액체를 따라내는 주둥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 ○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 1)

사다리가 있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맞배지붕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모임지붕인 집모양 토기입니다. 용마루는 맞배지붕에서 뚜렷하다가 모임지붕으로 갈수록 밋밋해집니다. 지붕면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지만 지붕을 눌러주는 새끼줄 또는 나무틀이 표현되어 있어 이엉이나 나무판자를 엮은 지붕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 살림집으로 보는 의견과 동물 우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 2)

지붕 부분과 벽체 및 기둥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배형인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 띠가 붙어있어 초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마루와 지붕 가장자리 내림마루에 점토 띠가 붙어있습니다.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도리와 대공 점토 띠가 달렸습니다. 곡물을 보관한 곳간을 본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림 1.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



그림 2.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와 복원품

## 부처의 음성-불교 범음구의 세계

허형욱,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불교는 명상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열반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정적인 종교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술이나 음악같은 감각적 수단을 활용하여 불세계의 장엄함을 나타내려는 역동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와 밀교의 의례에서는 사·청각적 도구가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불교 범음구梵音具가 발달했습니다. 이에 범음구의 소리를 부처의 음성과 동일시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범음구로는 범종梵鍾, 범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쇠북[금고禁鼓, 금구禁口, 반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범음구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흥사 명 범종과 경암사 명 쇠북을 들 수 있습니다.

천흥사 명 범종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기년명 종으로서, 1010년(현종1)에 만들어졌습니다(그림1). 통일신라 양식을 따르면서도 변화가 이루어진 고려 전기 범종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종의 몸통에 위패 모양을 새기고 그 안에 ‘聖居山天興寺鍾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 일)’ 이라는 글을 양각했습니다. 천흥사는 오늘날의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절터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통화統和는 북방 거란(요遼, 916~1125)의 연호입니다.

경암사 명 쇠북은 1073년(문종27)에 제작되었습니다(그림2). 고려 기년명 쇠북 중 가장 이른 예입니다. 테두리에 ‘咸雍九年癸丑十月日瓊巖寺盤子入重五拾五斤棟樑僧慶眞(함옹구년계축시월일경암사반자입중오십오근동량승경진)’ 라는 글을 음각했습니다. ‘1073년 계축년 10월에 만든 경암사의 반자로, 무게는 55근이고 동량은 승려 경진이다’ 로 해석됩니다. 천흥사 명 종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의 국제관계를 반영 하듯 함옹이라는 거란(요)의 연호를 썼습니다. 쇠북을 ‘반자盤子’ 라 썼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함통咸通 6년(865년)명 쇠북이 ‘금구禁口’ 로 표기된 것과 달라서 주목됩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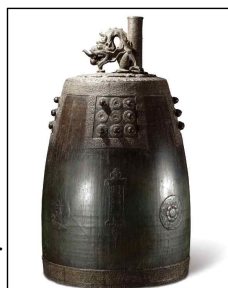


그림2.



그림1. ‘천흥사’ 명 범종, 고려 1010년, 높이 187cm, 덕수2445, 국보 제280호

그림2. ‘경암사’ 명 쇠북, 고려 1073년, 지름 60.6cm, 덕수2367



## 구석기인들의 삶: 구석기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이경수, 101호 구석기실 19:00~19:30

구석기인들의 생계경제는 구석기시대 전기간에 걸쳐 채집과 사냥이 주를 이루고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족지 자료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원시 집단들이 채집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냥은 기회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구석기시대에도 유사한 방식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기시대 한반도에서는 계절별로 식량자원이 고르게 채집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서 초봄에 이르는 기간에는 사냥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냥의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기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이사냥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스페인 토랄바(Torrvalba) 유적에서는 맘모스를 불로써 물이하여 늪지에 빠뜨린 후 사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이 남긴 야외 주거지의 발견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프랑스 니스의 테라 아마타(Terra Amata)에서는 중심에 노지가 있고 주변을 움막으로 완전히 둘러싼 40여만년 전의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지리치 유적에서는 95마리분의 매머드뼈로 만든 주거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구석기인들의 석기 문화는 시기별로 차이가 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는 일반적으로 아슐리안 전통의 특징적인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크기가 크고 평면 형태는 첨두형이거나 계란 모양의 양면가공한 석기를 말합니다. 유럽 서반부, 중



그림. 우크라이나 메지리치 유적 매드뼈로 만든 주거지(복원)  
동, 아프리카, 영국, 인도,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